불교 - 자아의 실체

1)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출생할 당시에는 인도의 전통사상인 브라만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브라만교는 기원전 10세기경 아리아인들이 남하하면서 인도 반도의 토착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종교로, 태양신인 브라만을 숭배하는 전통종교이다. 소수의 정복민이었던 아리아인들이 브라만의 전통에 따라 다수의 토착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신분 질서가 카스트 제도이다. 아직도 인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상은 엄격한 신분의 율법에 따라 자유와 경제력의 소유 정도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수드라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석가모니는 이런 상황에서 기원 전 6세기경에 이르러 불교를 창시하게 된다. 당시 인도에서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윤회의 윤리를 주장한 우파니 샤드의 철학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사카족의 왕자였던 석가모니는 어느 날 우연히 성 밖으로 나가 당시 민중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지켜보고 충격에 빠진 뒤,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과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자기의 편한 생활을 버리고 출가하여 35살에 이르러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

석가모니라는 호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석가모니는 '사키아족 출신의 성자'라는 의미이다. 석가는 북인도에 있던 샤키아(Śākya)라 불리는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모니(牟尼)는 성자를 의미하는 무니(muni)의 음 이름대로 부른 말이다. 석가모니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붓다'이다, 붓다는 중국에서는 '불타'(佛陀)라 불리고 있다. 불교에서는 붓다는 '깨달은 자'를 뜻하며, 우리가 말하길 소위 '부처'로 불려진다.

2) 사성제

불교 교리의 핵심적 사상으로, 현실 세상에서의 고통의 원인과 그 결과로 고통이 나타나고,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과 그 결과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지 얼마 후에 행한 최초의 설법 내용이다.

사성제는 첫째, 현실 세계가 모두 고통이라 여기는 고성제(苦聖諦)가 포함된다. 고성제는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등을 포함하여,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어리석은 중생이 모든 사물은 변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 세계의 인식으로 집착하여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집착이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하는 집성제(集聖諦)이다. 셋째는 괴로움은 완전히 멸할 수 있으며 괴로움을 없앤 상태가 해탈이라고 하였는데, 멸이라는 뜻은 '없앤다.'라는 뜻으로 현실세계의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탐을 없애고, 고통이 없는 청정무구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멸성제(滅聖諦)이다. 넷째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8가지의 바른 수행 방법, 여덟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멸도성제(滅道聖諦)이다.

3) 팔정도

팔정도는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여덟 가지 구도의 방법이다. 팔정도를 다른 말로 팔정도지(八正道支) 혹은 팔정도분(八正道分)이라고도 부른다. 팔정도는 실천 수행하는 중요한 덕목을 여덟 가지로 나눈 것인데, 이 팔정도야 말로 중도(中道)의 올바른 길로서 완전한 수행 방법이라고 보았다. 또 성인의 도로 나타내어 성도(聖道)라고 부르기도 한다.

팔정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① 정견(正見) : 올바른 견해를 의미한다. 즉 자기와 세계를 보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정견은 이 세상은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해 진행된다는 연기의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며, 현실 세계는 고통스러운 곳[苦諦]이며, 이 고통의 원인[集諦]을 알아 생노병사의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는 수행[道諦]을 통해 절대 행복의 경지[滅諦]에 도달할

수 있다[四聖諦]는 것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정사유(正思惟) :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어(正語) : 정어는 올바른 말을 뜻하며, 허망한 말 대신 진실한 말을, 입에 발린 말 대신 정직한 말을, 이간질하는 말 대신 화합시키는 말을, 험악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정어는 진실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정업(正業) :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정업은 살생하지 말고 방생하며, 도적질하지 않고 보시하며,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청정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정명(正命) : 바른 견해에 입각하여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명은 실천적 과정에서의 방법을 강조한 것이다.

⑥ 정정진(正精進) :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굳은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라는 것이다. 이는 곧 불자로서의 구도의 자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악이 생기지 못하게 하고, 발생하지 않은 선을 발생하게 하는 일이며,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고 실천해나가는 정열과 용기를 뜻하기도 한다.

⑦ 정념(正念) : 정념은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항상 해탈의 경지를 위하여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바른 생각을 말한다. 참된 진리를 항상 명심하여 다른 잡념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정사유와 함께 내면적인 마음을 확실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⑧ 정정 (正定) : 바르게 집중(集中)한다는 뜻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정정은 정념이 더욱 깊어진 상태로서, 정념의 성취로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온갖 번뇌와 어지러운 대상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빛나는 경지를 말한다.

2. 확장 개념

1) 인연사상

연기설은 잇따라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은 서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에 따라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이 되어져 있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을 수 없다는 즉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긴다는 말은 불교의 인연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나무라는 제1원인과 불이라는 제2원인이 만나면 '탄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모든 사물은 이렇게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연기설이다. 연기설에 의하면 존재의 본질은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흐르는 것이다.

2) 자비사상

자비사상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 사상 중에 하나이다. 불교의 인연 사상으로부터 나와 세상 모든 존재는 불가분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자각함으로써,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중요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나를 아끼듯이 다른 것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타불이의 정신이다.

3. 관련 지식

삼법인설

삼법인설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존재의 3가지 특성을 말하고 제행무상·제법무아·일체개고를 가르치는 말이다. 제행무상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세상만물은 연기설에 따라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원리를 말하고, 이렇게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소멸함으로 불변의 실체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법무아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란 없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마지막 고성제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만물은 제행무상하여, 제법무아 하므로 인간이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라고 본다. 이것이 고성제이다. 연기설에 따라 모든 것은 되돌아 흐르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석가모니 - 사성제 팔정도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